



:: 시카고 KCLC / CLC-USA 소식 ::

총무 3월 27일 피정 강의 녹음 파일 전 CLC 회원들에게 전달.

재무 **KCLC Chicago 회비** - \$60/1 년, 부부인 경우 \$60+\$30 (NKCLC 로 \$12 보냄)
CLC USA 회비 - 서약자 \$80/1 년, 미서약자 \$40/1 년 (모두 NKCLC 로 보냄)

양성

- 1) 일일피정 (3/27): 70 명 참석
- 2) 4 박 5 일피정: Chicago CLCer 아닌 사람들에게 홍보 이멜 보냄
- 3) 시노드 진행자/서기 교육 (CLC-USA): 18 명 참석
- 4) 시노드 진행자/서기교육 (Chicago): 3/30,3/31- 김성자 불러나

가이드

- 1) 3월 초부터 서약 준비과정 시작. 각 과정의 마무리 날짜는 다음과 같음
 유기서약: 5월 중순 / 갱신서약: 4월 말 / 종신서약: 6월 중순
- 2) 서약식은 8월 연피정 파견 미사에서 가질 예정

사도

- 1) 사도직으로 전 CLCer의 반모임 참석 적극 권고
- 2) <Youth frontier>: 2월부터 시작된 전국 청년 기도모임이 5번의 모임을 갖고 김두현 사도요한 신부님과 4/5/22에 Supervision session을 두 가이드님들(이영옥 마리아, 박테레사)과 함께 하실 예정임. 계속 기도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홍보

피정 강의 녹음
 피정 후 관련 기사작성 미주 평화 신문에 송부

:: 책 ::



23 년의 소비에트 수용 생활 끝에 미국에 돌아온 취제크 신부의 송환 이후 삶과 생각이 담긴 미발표 원고 모음집. 그가 쓴 원고, 피정 강연, 상담 편지와 생전에 그를 알고 지낸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역경에도 부서지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염원했던 한 사람을 볼 수 있다.

정강엽 신부님 복음 묵상

8 월 18 일-8 월 22 일 있을 시카고 이냐시오 침묵 피정에 지도 신부이신 예수회 정강엽 베네딕토 신부의 사순 제 3 주일 복음 묵상을 나눕니다.



사진을 누르세요.(2:30)

이냐시오의 해 (5.20.2021~7.31.2022)

성 이냐시오 회심 500 주년을 맞이하여 예수회는 2021 년 5 월 20 일부터 2022 년 7 월 31 일까지 '이냐시오의 해'를 지냅니다. 한국 예수회에서 예수회 벨기에 네덜란드 연합지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의 한국어 더빙판을 제작했네요.



[애니메이션]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찾기 (사진을 누르세요. 11:27)

:: 후원회 가입 신청 ::

[여기를 누르세요.](#)

예수회 후원회

우리들의 후원금으로 예수회 사제 양성을 비롯하여 예수회 내의 모든 사도직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기존회원님들께도 지속적인 후원 부탁드립니다.

- 미주지역 후원금 보내실 곳

USA Midwest Jesuits, 1010 N. Hooker, St., Chicago, IL 60642
보내신 내역을 이숙영 막시마 자매에게 카톡으로 보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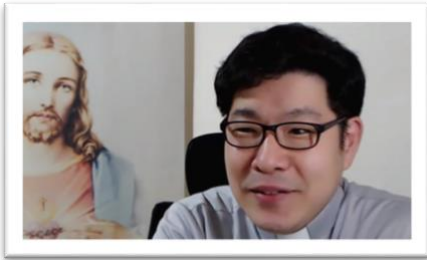
4 월 후원회 강의: 4/4(월) 7pm(CT) - 이흔관 신부/예수님의 생애 : 예수님의 친구들
4/18(월) 7pm(CT) - 이흔관 신부/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zoom id : 979-720-4403 _비밀번호: 1

:: 방문해 보세요 ::

- 예수회 후원회
- 예수회 센터
- 말씀의 집
- 순천예수회영성센터
- 각 센터를 누르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시카고 KCLC 일일 피정 관련 소식 - 미주 평화 신문 기사



시카고 KCLC(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의장 장영란 유리안나)는 3월 27일 39명의 시카고지역 회원과 서부, 동중부, 아틀란타를 비롯한 미주 전지역 회원과 비회원 포함 총 70명이 참가한 하루 피정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피정을 위해 시카고 KCLC는 지난 1월부터 시카고 KCLC 웹 사이트 (chicagokclc.org)와 뉴스레터를 통해 전국 KCLC 회원들에게 홍보를 해왔다.

피정은 “하느님을 향해, 하느님과 함께 하는 기쁜 삶”을 주제로 한국 예수회 한민 토마스 신부의 강의와 참가자들의 소그룹 나눔으로 진행되었다. 한민 신부는 강의에서 이냐시오 영신수련 <원리와 기초>의 정신인 ‘무질서한 애착(내 삶의 근본적 목적에 방해가 되는 것)’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저물고 있는 우리의 육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내 삶의 성전 속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일상의 수도자’라는 소명으로 ‘영의 시간’을 선택하며 사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는 영의 시간을 살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한 신부는 영신수련 둘째 주간 중<겸손의 세 단계>를 설명하며 얼마전에 소천하신 어머니와 얽힌 에피소드와 일상의 성찰을 나누면서 피정자들의 이해를 돕고 성찰을 이끌었다. 특히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어머니와 하느님 간에 간절했던 관계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으며 평생을 하느님을 향해 걸은 어머니의 영의 시간들에 대해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이 힘든 가시밭 길을 다 걷고 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확신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말과 함께 강의는 마무리 됐다.



강의는 시종일관 경쾌하고 밝은 톤으로 진행이 되었고 한민 신부의 담담하고 깊은 나눔은 피정자들에게 여운과 감동을 주었다. 김영옥 실비아(버지니아, 정하상성당, 동중부지역 의장)는 “사순을 보내며 육적인것에서 영적인것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초대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십자가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며 살아야겠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고, 권행숙 요안나(시카고, 순교자성당)는 “피할 수 있는 고통과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이야기 해 주실 때 그 기준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 많이 와 닿았다. 내게 주어진 고통에 대해 남 탓을 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정근자 글라라(아틀란타 조지아, 순교자성당)는 “마음에 와 닿은 좋은 피정이었다”고 소감을 나누어 주었다.

시카고 KCLC는 8월 18일(목)부터 22일(월)까지 4박 5일동안 이냐시오 영성 침묵피정을 정강엽 베네딕토 신부(지도신부, 로마 예수회 본부)와 일리노이주 Libertyville 소재 Mary Town 피정센터에서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주제로 연 피정을 갖게 된다. 더 자세한 안내와 피정 신청은 kclc.chicago@gmail.com 또는 web.chicagokclc@gmail.com 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사진 제공 김진경 안나

한민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 - 일일 피정 후기



<이영옥 마리아, 마니피카팀>

하느님은 이 세상 모두의 곁에 계실 수 없어 우리에게 엄마를 보내주셨다는데, 내 곁에 계실 수 없게 된 엄마는 이제 수시로 천사를 보내 나를 지켜 주신다. 한민 토마스 신부님은 3월 27일 오후 4시에 파견된 천사. 토마스 천사가 시카고로 출장을 간다는 말을 들은 엄마는 천사를 찾아가 부탁하셨을 것이다. 거기 내 딸이 있으니 꼭 보고 와달라고. 토마스 천사의 임무는 전하라는 것. 어렵고 선부른 지식 말고, 중요한, 하느님의 지혜를 전하라는 것. 고민을 했고, 평생 지혜를 삶으로 보이신 누가 될까 메주고리 성지에서 넘어져 팔을 나달나달 닳은 공동번역 성경과 손수 쓰신 엄마 얘기를 강의 곳곳에 배치해 우리 눈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본질은 천국에 계신 우리 엄마의 지상에서의 삶을 요약한 것이었다. 평생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본능적으로 알아내어 그것들이 작당해서 한꺼번에 때를 지어 몰려와도 하나는 옆에 끼고,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머리에 이고, 하나는 단단히 손을 거머 잡고 어떻게든 다 데리고 앞만 보며 씩씩하게 헤쳐 가시던 엄마의 지혜를. '고맙다'라는 말이 일상이었던 엄마는 토마스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셨을 것이다. "토마스 천사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엄마가 천국에 와서 만나본 하느님 얘기를 가슴으로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가장 토마스 천사는 이 어려운 지령을 받고 여러 날 자신의 엄마 얘기를 하기로 했다. 성모님께 행여 다치고도 참아내시고, 평생 손에 놓지 않아 필사본 성경 노트 등 영적 유품을 남긴 천사의 핑그르 눈물이 돌게 했다. 피정의 핵심 내용인



<손정애 도로테아, 마지스팀>

지난 2년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며 감사하게도 한민 토마스 예수회 신부님의 지도하에 일일 피정에 참석하게 되었다. 신부님은 고독사 한 이들의 뒤처리를 하면서 사는 분의 영상을 보며 했던 자신의 성찰로 강의를 시작하셨다. 강의를 들으며 "이제 우리는 저물어가는 육의 시간을 너머 영의 시간을 준비할 때이다."라는 것과 삶의 "무질서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말이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다. 삶의 여정에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반드시 맞이하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리고 마음으로 그 순간을 대하여야 할까? 이번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내게 온 시련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자신에게 되묻게 되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며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곁에서 묵묵히 지키시는 성모님을 떠올려 본다. '모든 시련과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신부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이기심으로 죄를 지은 날도 주님께서 주신 날들은 아름답고 소중한 매일이다. 그리고, 이 순간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임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것이다. 어제의 무질서한 우리의 삶에서 자유로워지도록 그분 안에서 위안과 평화를 얻고 성찰하며 삶 속에 나의 신앙이 녹아 들도록 노력해야할 것 같다.



시련과 고통도 함께 온다. 그러나 그 삶은 된다. '나는 그 종착역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어떤 피정을 통해 고통과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